

서른한번째 이야기

그분의 솔선수범을 따라

2019 찾아온 사랑을 찾아서- 서울 정동

매우 낮 익은 곳이지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돌아다녔던 길을 자세히, 그것도 선교적 관점에서 새롭게 보게 될 것이라는 기대에 가슴이 설레는 아침이었고 날씨도 좋았다.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13층에 있는 정동 전망대에서 인도자 김천봉 집사님께서 외국공관 자리를 잡으면서 정동사거리를 중심으로 이화학당 방면으로는 미국 감리회가, 그 반대편은 미국 장로회가, 덕수궁 뒤 영국대사관 앞뒤로는 성공회와 구세군이 선교단지를 조성했다는 정동 탄생의 역사적 배경을 말씀해 주셨다. 정동의 본래 이름은 '경운궁'이었지만 일제가 강제 퇴위시킨 고종이 거주하면서 순종이 고종의 만수

무강을 기원하면서 붙인 이름이라고 설명해 주셨다. 늘 바깥에서만 보았던 정동제일교회 안으로 들어가 교회의 속살을 훑쳐보는 즐거움도 누렸다.

우리 민족의 영원한 누나 유관순 열사를 공주 영명학교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유관순 열사의 스승으로 이화학당 교사이자 독립 운동가였던 김란사님을 처음으로 이화여고에서 만났다. 덕수궁 중명전(重明殿)은 언더우드 사택이 있던 북장로교의 선교단지였으나 아관파천 1년 후 고종이 덕수궁에 자리를 잡은 후 고종의 편전이자 외국인 접견 장소로 활용됐으며,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가 주도한 을사늑약이 맺어진 비운의 현장이기도 했다. 구러시아 공사관 3층탑과 고종의 길을 거쳐 북창동 순두부 집에서 점심을 먹고 해산하였다. 청계천 산책로를 따라 집으로 걸어 돌아오는 길에 광화문 네거리에서 소위 태극기 부대와 기독교 연합시위대를 만났다. 그들은 태극기와 성조기 그리고 이스라엘 기를 들고 있었다.



나는 걸어오면서 ‘거듭거듭 잘 살펴보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냈다는 증명전과 함께 예레미야 44장을 떠올렸다. 우리와 같은 약소국의 생존조건은 무엇인가 다시 생각해보았다. 그것은 누군가가 말한 대로 ‘보고 싶지 않은 현실도 볼 수 있는 정확한 눈’과 ‘스스로의 의지대로 쓸 수 있는 자신만의 무기’, 그리고 ‘지도층의 솔선수범’일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생각했다. 이 조건과 덕수궁의 역사와 그리고 광장에서 벌어진 일들은 과연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인가?

‘보고 싶지 않은 현실도 볼 수 있는 정확한 눈’이란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것이다. 증명전이란 이름은 정확한 눈을 갖겠다는 뜻이다. 그런 면에서 의미심장하다. 그것은 아마도 일본이 오기 전, 선교사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뿌리신 분의 뜻을 의미할 것이다. ‘스스로의 의지대로 쓸 수 있는 자신만의 무기’는 무엇일까? 핵무기와 같은 물리적 수단일까? 개인적으로 조선의 망국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다. 증명전의 ‘명’은 ‘세상의 빛’이라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것이야 말로 물리적 수단을 대체하는 진정한 무기가 아닐까? 그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참된 도덕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 거룩함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따라 살아가며 이를 세상에 전파해야 한다는 지상명령을 떠올리며 ‘지도층의 솔선수범’을 떠올렸다. 지도층은 세상의 정치지도자나 재력가가 아닐 수도 있다.

그 사랑에 빛진 자 되어

모임 공지를 무심히 본 탓에 정릉인 줄 알고 간 정동! 가을 단풍은 골목 초입부터 돌담 위로 붉게 타오르는 눈부신 황금빛과 함께 멋진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삶을 나누는 성도들과 함께 순례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이미 마음은 설레었고, 나무들의 고운 자태는 우리들의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우리는 덕수궁을 비롯한 근대문화유산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시작으로 「이 땅에 찾아온 사랑」을 안내하시는 김천봉 집사님을 따라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떠났다.



조선왕조의 수명이 다해 갈 무렵, 서양 선교사들이 삶으로 머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근대사의 신문화라는 씨앗으로 뿌린 이곳, 정동은 ‘정릉이 있는 동네’라는 뜻으로 태조가 사랑한 신덕왕후의 무덤이 있었던 곳이라는 데서 유래되었다. 초가집이 즐비하던 이 길에는 1897년 한국 최초의 개신교 예배당인 정동제일교회가 세워졌고, 아펜젤러, 언더우드, 알렌과 스크랜튼 등 많은 선교사들이 기거하였다 한다. 최초의 신식 여학교인 이화학당은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가 설립하였으며, 가난하고 버려진 여자 아이들을 교육하였다. 최초의 여성전용병원, 최초의 서

[글쓴이: 이용구 집사]



온누리 교회 중종로 공동체 소속이며, 삼일회계법인에서 회계사로 일하고 있으며 배움의 열정도 가득하여 현재 방통대에서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다.

가족은 온누리 여성사역 도우미 사역자로 일하고 있는 아내와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두 딸이 있다.

양식 호텔. 복음은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은 이 정동길에서 예배, 교육과 의료사역으로 점차 백성들에게 전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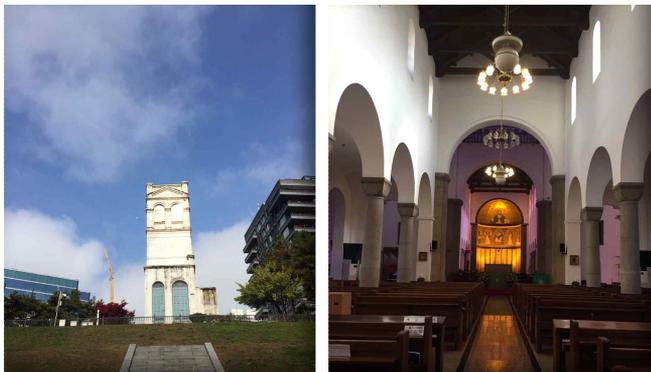
이어 우리는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던 비운의 장소인 중명전으로 향했다. 전시실에는 대한제국의 주권이 일본에 종속되던 날, 그때의 상황을 잘 재현한 실제 크기의 모형들이 있었다. 제복을 말끔하게 차려 입은 대신들의 모습은 우리를 일제강점기의 애국지사들과 같은 비장한 눈빛으로 만들었다.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일본이 두려워 비밀리에 진행된 고종과 왕세자의 아관파천. 그때 이동한 동선을 짐작하여 오늘날 고종의 길이 되었다. 비 개인 파란 하늘과 대비되는 하얀색의 구 러시아 공사관 건물은 역사의 한 조각으로 남아 아픈 마음을 시리게 한다. 무너져가는 나라의 운명을 함께한 구한말 선교사들은 고종의 호위대가 되었고 일부는 독립운동의 후원자가 되었다. 어두운 세력을 물리치고, 구원을 얻는다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일제로 인해 낙담한 백성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을까? 가을의 정취가 절정을 이룬 주한 영국대사관의 뒤편길을 걸어 한옥의 전통미를 살린 사제관과 서양 건축양식으로 동화속의 성 같은 성공회 서울성당을 끝으로 탐방은 마무리되었다.

낮선 땅, 우리에게 찾아온 선교사들의 숨결을 따라 걸었던 정동 순례길은 우리의 아픔을 함께 품은 그들의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거룩하고 경건한 시간이었다. 120년 전 우리에게 찾아온 사랑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도 사랑에 빛진 자가 되어 더 낮은 곳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들의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것은 어떨까?



[글쓴이: 김정은 집사]

양재 온누리 관악금천 공동체에서 순식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말씀이신 하나님과 그 사랑을 알고 싶어서 온비야를 신청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 집안과 같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살롬을 실현하는 크리스천 사업가가 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 김옥숙, 편집: 최선- 'BEE수'기자]

BEE의 보석 찾기

31. 박동현 장로

* 이번 주 보석 찾기 주인공입니다.



모태신앙으로 부모님의 신앙 유산을 따라 학창시절 교회 학교, 대학에서의 CCC활동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ROTC복무 후 직장생활을 시작할 즈음인 87년, 공사 중인 서빙고 온누리 교회 등록 후

하용조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2004년 양재 JDS 수료 후 공허한 가슴을 깊은 말씀으로 채우자라는 자발적인 동기부여로 BEE를 시작하였어요. BEE에서 대학동기인 나문채 선교사를 만나 우정을 쌓으며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되고 그 위에 굳게 서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침체가 있을 때마다 BEE에서 언제나 초심을 돌아보며, 말씀 양육자의 무거움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며 무릎을 꿇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BEE는 나에게 복음의 원형을 통해 존재의 본질을 깨닫고, 복음 전파자라는 사명감과 정체성을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양재 온누리 강남B 공동체에서 장로로 섬기며, 가족은 사랑하는 아내와 대학 4학년인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32. BEE 보석을 찾아요~

* 다음 주 보석 찾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동역자가 되어 성실함으로 아침 이슬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앞에 나오시는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BEE 소식

1. 겨울의 시작인 12월, 올 한 해에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이웃을 돌아보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 12월 9일(월) 6시 30분, 두란노홀, 'Blessing BEE Korea'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주실 비전에 대한 기대함으로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 2020년 1월 10일(금)-13일(월) 베트남 아웃리치(마감), 2020년 5월 8일(금)-16(토) 이스라엘/요르단 성지순례! 2020년도에 새롭게 주신 비전을 따라 아웃리치로, 성지순례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문의 BEE센터 02-822-9480)